

“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외침 ”

■ 이종윤 원로목사

십자가 사형은 로마인들에게는 아주 모독적인 형벌로 알려졌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은 유보되었다. 반면에 유대인들에게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혐오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예수를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처형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대신 죽으신 예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영광의 십자가로 변신케 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나?

유대인들은 예수가 신성모독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했고, 로마인들은 정치적 반란꾼으로 몰았고, 가롯 유다의 배신의 쓴잔으로 백성들의 모반으로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한다. 가롯 유다는 「내이니까」 뻔뻔스럽게 자기는 아니지요 확답을 받으려 했지만 「네가 말하였느니라」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본 십자가는 예수께서 속죄양으로 죽게 하셨다. 유대인들 각 사람의 죄 위해 한 마리 희생양이 필요하고, 한 가족 위해 유월절 한 마리 양이 필요하듯이, 한 민족 위해 그리고 속죄일에 한 마리 양이 바쳐지듯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어린양 예수께서 단번에(once for all)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죄를 받게 되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사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우셨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고전 15:3) 온갖 치욕과 버림과 고통과 아픔, 저주와 죽음을 내 대신 받으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원망과 시비·변명·호소 대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자기를 때리고 조롱하고 저주를 받았으나 예수는 다시 저주하거나 원망치 않고 용서하셨다. 자기를 때리고 못 박은 자를 모르실리 없건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복의 소나기나 불비를 내려 저들을 멸절시켜 달라 하는 대신 침묵하시다가, 위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는 당신의 존엄이 굴욕을 당하며, 당신의 선하심이 버림을 받고 있는 순간에 천군, 천사의 파송권을 갖고 계신 그리고 신성모독을 심판하실 주권자 하나님께 얼굴을 들어 외치시기를 “당신의 거룩·존엄·능력·명예를 잊으시고, 저희를 용서하옵소서”라고 하셨다. 심판자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중보자로 아버지 하나님께 향한 기도를 드린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 대신 하나님의 자비를 애원하신 예수님은 인간 앞에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자기 수난의 시간적 단축을 구하지도 않으셨다. 예수님은 살인자들의 용서뿐 아니라, 저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을 알게 해 달라고 기원한 것이다. 인간이 용서를 알지 못할 경우 그 용서는 무용하기 때문이다. 또 자신이 부활하신 후 저들이 죽인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경우 저들에게 두려움보다 위로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실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과 선한 선물이 여기 돌연히 나타났으며 이로써 모든 죄악으로 찬 현재는 지나가 버리게 되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저들이 자기의 행하는 바를 알지 못하니이다’라며 이해하고 있다.

예수님의 이 기원이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도 타당성이 있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던 형리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 예수를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로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못 박히신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 주셨다.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나타나 우주의 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선·악 간에 판단하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핑계할 수 없는 인생들이 지금도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기도는 1세기에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타당성을 가진 말씀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된데 이어 서울지역 특히 서울교회 인근 강남 서초 송파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확인되고 있어 부득이 정부와 총회의 코로나19 감염예방지침에 최대한 협력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선 이번 주일 전체 성도들이 참여하는 예배 대신 주일 1부 예배시간에 목사 장로 직원 등 소수의 인원만 모여 드리는 예배를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자 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여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새벽기도회도 별도 공지 시까지 부목사님의 인터넷 영상말씀으로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는 보내드릴 순서지를 통해 가족들과 함께 드리시되 설교순서에는 서울교회 유튜브 설교영상으로 대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 1부 예배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생방송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전 9시, 아래에 기재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예배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사정상 1부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2부나 3부 또는 편리한 시간에 아래 유튜브 채널을 클릭하시면 그대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접속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분은 사무국(02-558-1106)으로 연락하여 별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비록 교회에서의 공동체 예배가 아니더라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경건성을 꼭 지켜주시고 아울러 온종일 주일성수의 기록성도 훼손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앞서 안내하여 드린대로 영유아유치부, 유치동부는 부서 해당 교역자들이 SNS로 부모님들께 보내드리는 5분 메시지로 대신하며, 사랑부는 가정에서 1부 예배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드리도록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계속 집중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해(사야사),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해(방글라데시), 조병연(화회경, 우상식(김정옥(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해(말리우),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경범(한미순(일본), 김나형·오정녀(캐나, 김중일(백순미(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사, 비스토파, 사지, 에누(인도), 스프로토(바르이, 필리몬, 프란시또, 수레시, 수버쓰, 알로로, 비스누(쁘도, 보다소도, 린롱, 수원준(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임(필리우),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현(마다가스카르)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

■ 고전 1:4-9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교회 성도들 속에 견고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에 또다시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는 재림 신앙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강조가 상당수 이단들의 전유물로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세적인 삶에 대한 말씀 선포보다 현실적인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교훈들을 주기에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단들의 속임수가 아니라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분명한 신앙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 시와 때는 아버지 외엔 아무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주의 날에 대한 계산법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입니다.

1.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거를 굳게 붙들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우리 속에서 견고해지면 그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역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현실적 상황에 주시한다든지 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코앞에 닥친 현실에 집중하면 재림의 주님에 대한 소망을 기다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실 것입니다. 재림신앙은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세상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요 귀로 직접 들은 것도 아니지만 그 사실을 목격하고 들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2. 주님의 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만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로 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든 자신의 의도적인 악한 계획을 따라 악을 저질렀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 없다고 판정을 받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는 8절에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날이 어떤 이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감격의 시간이 될 것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이 날은 죽음의 날이요 공포의 날이요 사망선고를 받는 치욕적인 날이 될 것이나 어떤 자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적인 위로와 격려와 상급이 주어지는 감격적인 날로 다가올 것입니다.

맺는 말

우리 안에 심겨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확실한 증거를 더욱 굳게 붙드십시오. 그 증거를 견고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나 불편한 현실에 눈을 돌리지 말고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에 착념하십시오. 주님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몸이 남겨진 수많은 상처들, 사단이 활취고 지나간 수많은 자국들, 억울하게 당하여 쓰러린 눈물을 흘린 모든 흔적들, 주께서 다 씻어주시고 깨끗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백신을 받은 자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을 두 팔 벌려 영접하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송인권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인터넷 영상	
III 오후 2시	인터넷 영상	

-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사 55:3... 인 도 자
-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8(사순절5)... 다 함 께
-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 기 도 Prayer 말 은 이
- 찬 송 Hymn29(29)... 다 함 께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고전 1:4-9... 인 도 자
-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 찬 양 Anthem 찬 양 대
-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 설 교 Sermon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 서창원 목사
- * 찬 송 Hymn93(93)... 다 함 께
-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전례송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40:1-2 인 도 자
찬 송	338(364) 다 함 께
기 도	가 족 중
성 경	롬 13:8-10 인 도 자
설 교 ...	“하나님 뜻에 부합한 성도(4)” ... 인터넷 영상
찬 송	263(197) 다 함 께
주기도	다 함 께

수요예배 (개 인 기 도)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주강김복희2
설 교 장석남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고전 1:9)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은 빛	박레경	김윤지	홍혜란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예배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이번주 심방 일정
 3-3, 6-2, 8-2, 9-4, 10-2, 12-3, 13-6다락방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새벽기도
1,218명	430명	1,648명	1,763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3/22)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3월22일	헌 금	13,168,740	
	출 판 비		200,000
	지원교회		5,000,000
	복리후생비		56,200
	통 신 비		672,220
	차량유지비		1,004,520
	수선유지비		25,000
	식당운영비		235,250
	합 계	13,168,740	7,193,190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시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